

# 인도 국가협력전략

## India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2022. 1.

### 관계부처 합동

동 전략은 수원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작성되었으며, 국내 및 수원국 현지의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 목 차

I. 수원국 분석 .....	1
1. 인도 현황 .....	1
2. 주요국 공여활동 .....	5
3. 우리나라 공여활동 .....	9
II. 우리나라의 지원계획 .....	13
1. 기본 방향 .....	13
2. 중점협력분야 및 개발 우선순위 선정사유 .....	14
3. 분야별 지원 방안 .....	28
4. 이행점검방안 .....	22
III. 이행전략 .....	23
IV. 모니터링 및 평가 .....	25
1. 모니터링 방안 .....	25
2. 평가 계획 .....	26
참고 1. 수원국 개황 .....	28
참고 2. 주요사업계획(비공개) .....	31

## I. 수원국 분석

### 1 인도 현황

#### [1] 전략적 중요성

- (경제 규모 및 성장가능성) 수원국의 경제규모는 국내총생산액(GDP) 약 3조 497억달러(IMF, '21.4월)로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에 이어 세계 6위의 경제 대국

\* 미국 경제(22.6조달러)의 약 1/7, 중국 경제(16.6조달러)의 1/5 규모에 해당

- 1991년 이후 보호무역주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점진적인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섰으며, 2000년 이후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시현

\* 미국 경제(22.6조달러)의 약 1/7, 중국 경제(16.6조달러)의 1/5 규모에 해당

\*\* 경제성장률 (%) : 8.3('16), 6.8('17), 6.5('18), 4.0('19)

- '21년 현재 전체 인구의 약 절반이 25세 미만인 매우 '젊은 나라'로서, 약 8.5억명 수준의 생산가능인구 역시 '30년 기준 최대 10억명까지 도달 가능할 것으로 예상(인도 재무부, '19.7월)

- 풍부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현재의 고성장세를 유지한다면 '50년 전후로 미국을 제치고 총 GDP 기준 세계 2위 국가로 등극할 전망

- (외교·안보 주요 협력 파트너) 인도는 ▲우리나라와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 ▲다방면에 있어 긴밀한 교류·협력 관계 유지, ▲한반도 문제·지역·글로벌 이슈 등에 있어 중요한 협력 파트너

- 인도는 서남아·인도양 중심국으로서의 역내 입지 강화 및 글로벌 강대국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해 주요국들과 전방위적 협력을 진행 중

- 한편, 저소득국가의 의견을 꾸준히 대변하는 등 외교적 영향력을 유지 중

- (신남방정책 주요국) 다자원조 및 소수 국가의 양자원조만 수원하던 인도는 최근 4~5년간 경제개발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 등 G8 이외 국가의 양자원조를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
  - 이에 '15.5월 나렌드라 모디 총리 방한시 양국 정상간 합의를 통해 EDCF 10억달러 제공 합의
  - 이후, 인도의 지정학적·경제적 중요성이 인정되면서 우리 정부 신남방정책의 주요국가로 부각되고 있음

## (2) 수원국 발전 제약요인

※ (SDGs '심각 분야) 산업화혁신인프라, 물관리·보건위생, 농업지역개발, 공공행정 등(UN, '20)

- (빈곤 수준) 1인당 GDP(명목기준) 수준이 약 2천달러 수준인 하위 중소득국가(LMIC)로서 지역간·계층간 빈부격차 존재
    - \* 명목기준 1인당 GDP로는 전 세계에 약 150위권 수준('21년, IMF)
    - WB 등 주요 기관의 추산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경제성장이 본격화되면서 약 2억명 가까운 인구가 절대빈곤에서 탈출한 것으로 추산
    - '21년 기준 1일 소득 2달러 내외의 절대빈곤 인구는 약 6~8천만명 (전체 인구의 약 4~6%)로 조사되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해 1.3억명 가량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산
    - 자연재해나 전염성 질병에 취약한 다수의 빈곤층이 넓은 지역에 산재하여 거주하는 관계로 이들에 대한 각종 보건·의료 등 기초적 지원·행정서비스도 미비한 상황
    - 극심한 빈곤은 영양부족, 낮은 교육수준, 전반적인 노동력의 질 저하 등으로 이어져 발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 '20.12월 발표된 UNDP의 Human Development Index에 따르면 인도는 전세계 189개국중 131위(HDI Value : 0.645)로서, Bhutan (129위), Bangladesh (133위), Nepal (142위), Pakistan (154) 등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

- (경제사회 인프라 미비) 철도, 도로 등 경제인프라 및 교육, 보건·의료 등 사회인프라 역시 노후화 및 낮은 접근성이라는 문제에 직면
  - 잦은 정전·단수, 주요 도로 노후화에 따른 운송 지연(인도 도로 평균 속도 : 30~40km/h 수준)과 콜드 체인을 포함한 주요 운송관련 인프라 미비 등 또한 발전을 제약
    - ※ 세계경제포럼(WEF) 세계 경쟁력지수('19), '인프라의 질' 부문 : 인도 인프라 수준은 전세계 141개국중 70위, 도로(72위), 전기(108위), 물(96위) 등 중하위권을 기록
  - 사회 전체의 거버넌스 수준도 높지 않은 편으로, 유·무형 인프라 부재로 인해 창업 → 고용창출 → 소득증대 → 경제발전의 선순환 역시 어려운 상황
    - ※ WB의 Doing Business Index('21.9월 현재) : 인도는 전 세계 190개국중 약 60위권을 유지 중이나, 창업(136위), 재산권 보호(154위), 조세제도(115위), 계약 이행(163위) 등 거버넌스 및 계약안정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요 부문에서 하위권을 기록

### [3] 수원국 개발 계획 및 요청사항 등

- (수원국 개발전략) 나렌드라 모디 정부는 독립 75주년인 '22년까지 빈곤과 부패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로 '인도 국가개혁위원회 (NITI Aayog) 주도 **Strategy for New India@75**를 수립
  - ※ 총 41개 분야에 대한 개발전략 포함, 우리나라의 국제협력과 관련성이 높은 분야로는 '육상 인프라 개발', '디지털 연계성 강화', '도시개발', '스마트 시티', '에너지' 분야 등 포함
- (산업 및 인프라 개발전략) 산업경쟁력 강화 계획으로는 **Self-Reliant India** 정책을 추진 중인 바, 이는 '14년 모디 총리가 취임과 동시에 추진했던 제조업 육성 정책인 Make in India 정책의 확장판
  - 美·中 갈등,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기회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수행한 중국을 제치고 제조업 강국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 표명
  - 인프라 개발과 관련해서는 '19년 이후 국가 인프라 파이프라인 (National Infrastructure Pipeline)을 구축하기 시작

※ 에너지(24%), 도로(18%), 도시화(17%), 철도(12%) 등의 분야에 최대 1조 5천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발을 추진 예정

□ (FY21/22 연방예산(안)) '21. 2월 연방의회에 제출된 인도 정부 예산은 FY20/21 예산(안) 및 실지출액을 넘어서는 **확장적 예산안 편성**

- 코로나 사태로 인해 '20. 2/4분기중 G20 국가 가운데에서 최악의 경기후퇴를 경험한 인도는 예산투입을 통한 경기회복에 집중
- FY21/22 예산안은 **인프라 중심**의 예산을 지속 확대하는 동시에 인도 기업의 경쟁력과 사업 수행의 용이성 확대에 중점

#### 인도 FY21/22 예산안의 6대 Pillar

- (1) 보건 및 건강
  - 국민 건강 증진 등을 위해 동분야 예산을 전년대비 13% 증액
- (2) 자본 및 인프라 구축
  - 글로벌 공급망 (GVC) 거점 확보를 위한 제조 및 인프라 구축
- (3) 인도의 미래를 위한 포용적 개발 : 인도의 농/어업 등 1차 산업 발전 지원
- (4) 인적자본 활성화 : 소외계층 대상 교육 확대 및 국외 파견교육 활성화
- (5) 혁신 및 연구개발 : 첨단 과학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 및 연구개발 확대
- (6) 작은 정부와 효율적 거버넌스 : 기업의 사업/창업 용이성 향상

- 특히, **교통, 농촌개발, 농업**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지 표명

#### **주요 부문별 예산(단위 : 억루피)**

구 분	FY20/21(안)	FY20/21실지출	FY21/22(안)
농업 및 농업 연관 사업	11,245	14,535	14,830
교육	8,943	8,508	9,322
보건	6,342	8,244	7,460
농촌 개발	14,238	21,634	19,463
사회복지	4,465	3,963	4,846
교통	15,344	21,862	23,308
도시 개발	4,205	4,679	5,458

환율 : 10,000 루피 = 134.68 달러 ('21.11.19.일 기준)

※ 자료 : 인도 정부(MoF) 발표자료('21.2)

- 한편,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21. 8월 독립기념일 기념사를 통해 약 1조 3,500억달러 규모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

※ 구체적 분야와 시기는 밝히지 않았으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한 고용 확대 및 경기 부양을 동시에 도모할 것으로 예상

### (1) 주요 공여국 · 기관 공여활동(전략분야 · 예산)

- (對인도 지원 규모) 국제사회의 對인도 ODA 지원 규모(집행액 기준)는 최근 연평균 약 60억달러 수준으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양자원조(약 40억달러), 다자기구, 민간기구, DAC 비회원국 순

<국제사회의 對인도 ODA 규모(단위 : 백만달러)>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공여기관	4,721.4	5,437.9	3,827.1	4,609.3	5,229.3	5,340.2	5,295.6	6,252.8	5,699.5	5,952.8
DAC 회원국(총액)	3,266.5	3,313.9	2,712.5	2,977.9	3,078.9	3,290.1	2,919.8	4,112.8	3,812.7	4,271.6
다자(총액)	1,453.5	2,122.6	1,112.7	1,629.8	2,145.1	2,046.8	2,369.4	2,098.0	1,853.1	1,647.1
DAC 비회원국	1.3	1.4	2.0	1.7	5.3	3.3	6.4	42.0	33.6	34.1
민간기구(총액)	141.3	171.1	176.7	157.2	163.7	237.0	272.1	409.6	404.4	525.9

※ 자료 : OECD DAC 통계자료(총지출, 경상가격, '21. 9. 기준)

- 다만, ①ADB와 WB 등 다자기구가 ODA가 아닌 OOF 형태로 지원한 금액이 연평균 35억달러 가량 되는 점, ②다양한 UN 산하기관과 민간기구도 인도에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점 등을 감안시

→ 對인도 총 지원규모는 매년 연평균 약 100억달러 내외로 추산

- (양자 원조) 양자 원조(집행액 기준)의 경우 일본(54%), 독일(24%), 영국(10%), 프랑스(5%) 등 소수의 국가가 90% 이상을 차지

< 對인도 양자원조 동향('10~'19년 합계, 백만달러) >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노르웨이	기타	DAC 회원국 계
18,371.3	8,134.0	3,455.8	1,582.8	1,110.9	230.5	871.4	33,756.6
54.42%	24.10%	10.24%	4.69%	3.29%	0.68%	2.58%	100%

※ 자료 : OECD DAC 통계자료(총지출, 경상가격, '21. 9. 기준)

- 특히, 최근 3년의 경우 일본의 연평균 지원액이 25억달러를 상회하는 등 전체 양자원조 규모의 2/3 가량을 차지
-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독일(24%)과 인도의 과거 식민 지배국이었던 영국(10%)이 그 뒤를 따르고 있음

- (다자 원조) ADB와 WB가 사실상 양분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다양한 UN기구와 NGO들도 인도에 대한 지원을 지속

**<주요 다자기구 및 NGO의 對인도 지원 현황(백만달러)>**

구 분	'13	'14	'15	'16	'17	'18	'19
세계은행	1,689.5	2,441.9	2,714.1	3,217.4	2,435.6	2,641.0	3,777.8
아시아개발은행	1,160.7	1,700.9	1,960.0	1,971.1	2,548.5	2,533.6	2,691.2
유럽연합	160.3	74.1	334.6	331.5	498.5	404.7	206.1
기타 기관	466.1	430.4	585.4	449.0	368.5	413.1	496.7
<b>다자 및 NGO 계</b>	<b>3,476.6</b>	<b>4,647.3</b>	<b>5,593.9</b>	<b>5,969.0</b>	<b>5,851.2</b>	<b>5,992.4</b>	<b>7,171.8</b>

※ ADB 및 WB의 ODA 및 OOF 지원 포함

※ 기타 기관으로는 WHO, Adaptation Fund, GAVI, GEF, Global Fund, GGGI, GCF 등이 있음.

**< 지난 5년간 대인도 ODA 공여 순위 >**

**<다자기구>**

순위	기구	금액 (백만달러)	비중
1	세계은행	6,253.1	61.3%
2	EU	1,705.3	16.7%
3	GAVI	651.6	6.4%
4	글로벌기금	643.0	6.3%
5	유니세프	303.4	3.0%
6	IFAD	207.5	2.0%
7	CIF	139.3	1.4%
8	GEF	86.6	0.8%
9	ADB	67.1	0.7%
10	WHO	35.7	0.3%
다자 ODA 총액		10,206.9	100%

**<양자 공여국>**

순위	국가	금액 (백만달러)	비중
1	일본	10,947.0	57.7%
2	독일	4,961.9	26.2%
3	프랑스	1,091.7	5.8%
4	영국	792.7	4.2%
5	미국	606.3	3.2%
6	이스라엘	96.0	0.5%
7	노르웨이	80.5	0.4%
8	이탈리아	74.0	0.4%
9	스위스	73.2	0.4%
10	캐나다	35.7	0.2%
양자 ODA 총액		18,971.4	100%

주: 2019년 고정가격 기준, 2015~2019 총지출 누계.

자료: OECD Stat. 데이터베이스 토대로 산출.



## [2] 주요국 공여활동을 통한 시사점

- 對인도 주요 ODA 지원 주체인 WB, ADB, 일본, 독일 등의 최근 3년간 승인(Approval) 내역은 주로 교통인프라, 수자원 관리, 도시 개발, 에너지 부문 등 대형 인프라에 집중
  - WB의 경우 하수처리와 에너지·재생에너지 부문에, ADB, AIIB와 JICA는 교통 부문에 지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
- (WB) 1억달러 이상 승인 프로젝트(3년간 총계 281억달러)를 기준으로 할 경우 '18년 이후 정책·행정(41.2%), 수처리(18.1%), 에너지·재생에너지(12.7%), 도로항만(11.3%), 농업(4.7%) 순
  - 다만, 정책·행정 분야(116억달러)를 세분할 경우 산업·무역정책(42억달러), 교육(28억달러), 수처리(22억달러) 순

< '18년 이후 WB의 승인프로젝트 분류(단위:백만달러, %)>

정책·행정	수처리/하수처리	에너지/재생에너지	도로/항만 등	기타	농업	보건/의료	총계
11,603.1 (41.2)	5,105.1 (18.1)	3,561.2 (12.7)	3,167.0 (11.3)	2,370.0 (8.4)	1,327.2 (4.7)	1,015.0(3) (.6)	28,148.5 (100)

※ 지원규모 1억달러 이상의 주요 프로젝트 기준

- (ADB) '18년 이후 총 74억달러로, 교통관련 프로젝트가 거의 절반을 차지

< '18년 이후 ADB의 승인프로젝트 분류(단위:백만달러, %)>

교통	도시개발	농업	에너지	수처리	기타	계
3,400 (46.2)	1,377 (18.7)	1,216 (16.5)	807 (11.0)	112 (1.5)	451 (6.1)	7,363 (100)

- (주요 교통프로젝트) 뭄바이 지하철(9.3억달러), 벵갈루루 지하철(5억달러), 마디아 프라데시주 도로부문 개선(4.9억달러), 타밀나두 산업도로(4.8억달러) 등

- (AIIB) '18년 이후 57억달러 중 절반 이상이 교통 분야(54.8%)에 지원하였으며, 보건(코로나19 대응 포함), 에너지, 수자원 관리 등에도 지원

< '18년 이후 AIIB의 승인프로젝트 분류(단위:백만달러, %)>

교통	보건 (코로나대응)	에너지	수자원	도시개발	계
3,116 (54.8)	1,250 (22.0)	564 (10.0)	545 (9.6)	210 (3.7)	5,685 (100)

- (일본) JICA의 경우 '18년 이후 전체 승인의 71% 가량이 교통부문이며, 물 관리(13.7%)가 그 뒤를 이으며, 경제 인프라가 사실상 85%를 차지

< '18년 이후 JICA의 승인프로젝트 분류(단위:백만달러, %)>

교통	물관리	보건/코로나 대응	농업	에너지	기타	계
9,835 (71.2)	1,889 (13.7)	946 (6.8)	679 (4.9)	321 (2.3)	138 (1.0)	13,809 (100)

- (독일) KfW 등 독일계 기관은 각 연도별 세부 승인 내역을 비공개
- 그러나, 최근 수년간 코로나 대응(4.6억유로)를 포함한 보건·의료분야는 물론 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에도 수억 유로 규모의 지원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3

## 우리나라 공여활동

### (1) 지원현황 및 실적

□ (지원 규모) 우리 정부는 지난 5년간('16-'20) 총 753만달러 제공, 무상원조의 비중이 전체 ODA의 100%를 차지

- '15년 인도 ODA 정책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지원 비중 증가중

#### < 한국의 對인도 ODA 지원 규모 추이 (2016-2020) >

(단위: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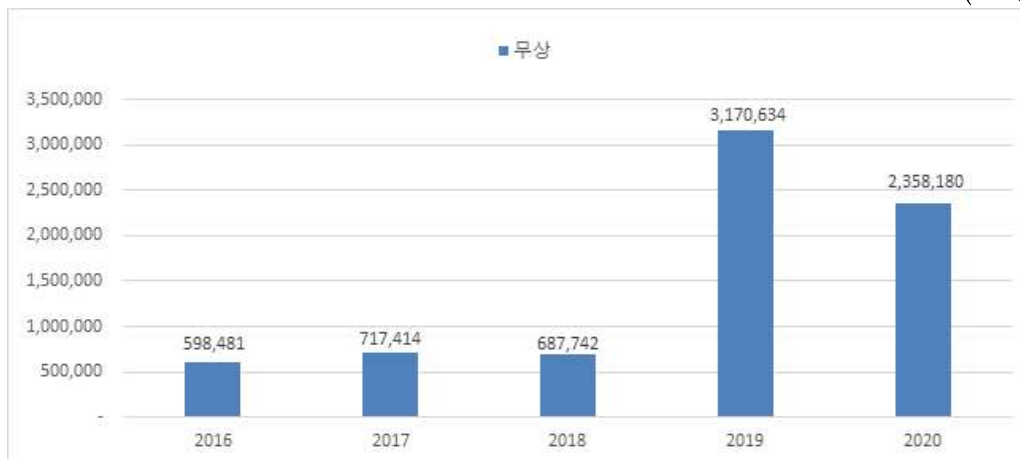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총지출액	598,481	717,414	687,742	3,170,634	2,358,180

주: 총지출액 기준.

자료: 대한민국 ODA 통합정보포털

#### < 한국의 對인도 ODA 지원 규모 추이 (2016-2020) >

(단위: 달러)



주: 총지출액 기준. / 자료: 대한민국 ODA 통합정보포털

○ 지금까지는 대부분 소액 무상원조의 형태였으나, 현재 1개 유상 사업 승인, 1개 유상 후보사업 협의중

※ 나그푸르-मुंबई 고속도로 ITS 구축사업 : EDCF 사업 승인('21.11.25)

반드라 공공지구 재개발 사업 : 사업 구체안 협의 중

- '20년부터 인도 중소기업 역량강화사업 및 인도 직업기술교육 역량 강화사업 등 무상 ODA 신규사업 추진 중

- (시행기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가장 높은 비중(38%)을 차지, 그 외에 한국수출입은행(EDCF), 교육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등

< 인도 ODA 실적: 상위 시행기관 >

(단위: 달러)

시행기관	2016~2020년 총 지원금액	비중
한국국제협력단(KOICA)	2,841,082	38%
한국수출입은행(EDCF)	2,106,319	28%
교육부	932,650	12%
해양수산부	414,298	6%
기획재정부	350,864	5%
문화체육관광부	320,519	4%
국무조정실	161,284	2%
지방자치단체(강원도)	105,345	1%
외교부	86,501	1%
국가보훈처	78,574	1%
기타	135,015	2%

주: 총지출액 기준. EDCF 사업은 사업성차관비지원과 개도국공무원연수사업임.

자료: 대한민국 ODA 통합정보포털

- (주요 지원 분야) 기타 다부문 항목이 가장 높은 비중(29%)을 차지, 그 외 교육, 공공행정·시민사회, 농림어업, 산업·광업·건설, 보건, 물 공급·위생 등

< 인도 ODA 실적: 상위 분야 >

(단위: 달러)

분야	2016~2020년 총 지원금액	비중
기타 다부문	2,162,252	29%
교육	1,522,984	20%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962,284	13%
농림어업	795,334	11%
산업, 광업, 건설	543,612	7%
보건	358,567	5%
물 공급 및 위생	267,973	4%
기타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231,045	3%
은행 및 금융서비스	193,352	3%
운송 및 창고	177,553	2%
기타	317,495	4%

주: 총지출액 기준.

자료: 대한민국 ODA 통합정보포털

## [2] ODA 추진 SWOT 분석

- (외교관계) 1973년 12월 수교(북한과도 1973. 12월 동시 수교)
- (주요 협정체결) 무역협정(1974), 문화협정(1974), 이종과세방지협정(1985), 항공협정(1992), 투자보장협정(1996),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09),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2017)
- (교역·투자) 최근 양국간 교역규모는 연평균 200억달러 내외로, 우리나라의 對인도 무역수지는 매년 70억~90억달러 규모의 흑자를 유지 중
  - 인도 정부(DPIIT) 통계에 따르면 '00.4월~'21.3월중 인도의 해외직접 투자(FDI) 총 유치액은 5,297억달러로, 이중 우리나라는 48.8억달러로 0.9% 내외 차지

※ 최근 양국간 경제협력 동향은 [참고] '수원국 개황' 참조

### □ 對인도 ODA 추진 SWOT 분석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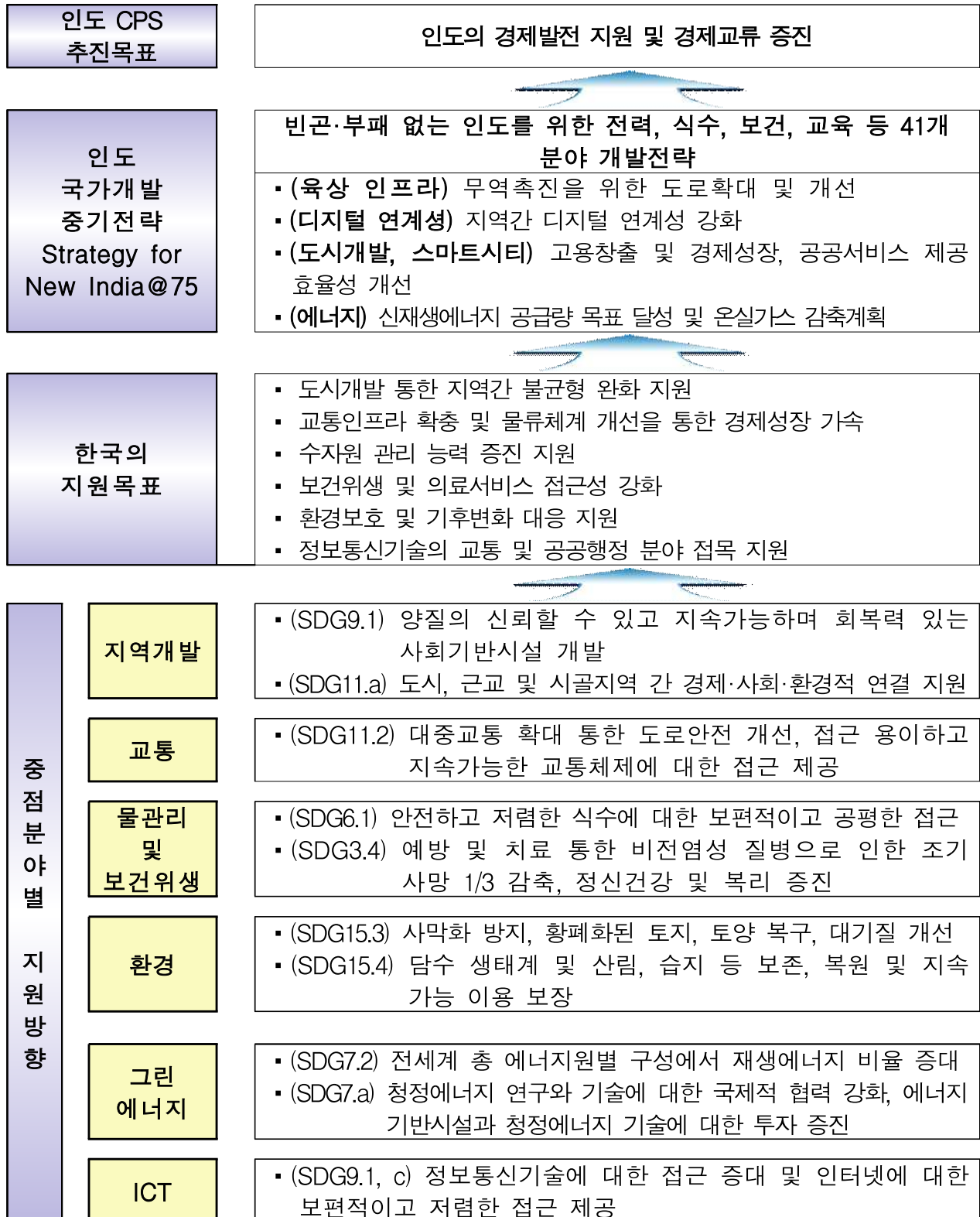
Strength	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점협력국 신규 지정('21.1월) 국가로, <b>우리 정부의 높은 정책적 의지</b></li> <li>□ 최빈국에서 OECD DAC 회원국으로 탈바꿈한 <b>우리나라의 성장 경험 공유 가능</b></li> <li>□ 수원국의 중점분야(대규모 인프라)에 부합하는 <b>인프라 부문에 대한 경쟁력</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지출 수요 증가 추세는 적절한 수준의 공공지출에 제약요인으로 작용</li> <li>□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보건·의료 및 긴급구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재정 운영의 유연성 저해</li> </ul>
Opportunity	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국제질서 재편, 주요 강대국간 역학관계 변화에 따라 <b>수원국의 정치·경제적 중요성 증가</b></li> <li>□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b>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 정책</b></li> <li>□ 풍부한 고급인력, 높은 기술수준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협력 기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열악한 경제·사회 인프라 환경</b></li> <li>□ 중국·파키스탄 등 인접국과의 빈번한 분쟁 등이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li> <li>□ 정치세력화되는 힌두교 우선주의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빈곤층 급증에 따른 사회불안의 고조될 가능성</li> <li>□ 수원국의 느리고 비효율적인 관료체제와 권위주의적 의사결정체제</li> </ul>

### **(3) 우리나라 개발협력 우선순위**

- (정부정책 방향)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그린 분야 및 우리기업 강점 분야이면서 수원국의 수요가 높은 디지털 분야를 집중 지원하여 K-뉴딜의 ODA 접목 추진
- (양국간 합의 분야) 양국은 '15. 5월정상회의 계기 10억달러 규모의 EDCF 지원에 합의하면서 우선 지원 분야를 既합의
  - 우선 지원 분야는 스마트 시티, 철도, 발전·송전 및 기타 양측이 합의한 분야로서, 동 분야에 대한 후보 사업이 추진되어 왔음

## II. 우리나라의 지원계획

### 1 기본 방향



**[1] 중점 협력분야**

- (양국간 합의 분야) '15.5월, 양국 정상은 스마트 시티, 철도, 발전 및 송전 그리고 기타 양측이 합의하는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
  - 지역간 개발 격차가 큰 수원국의 특성상 지역개발은 지속적으로 수원국 개발정책의 우선 순위를 차지
  - 또한, 나렌드라 모디 정부는 '22년까지 인도 전역에 100개의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추진
    - ※ 따라서, 당초 합의된 스마트시티 및 철도 분야 등에 대한 중점 협력을 지속할 필요
- (추가적인 중점 협력분야 발굴) 상기의 기존 합의 분야에 추가하여 수원국의 개발 수요가 높고 우리나라가 비교우위 경쟁력이 높은 분야에 대한 추가 지원 추진



## [2] 개발우선순위 선정 사유

① (지역개발) 지역간 개발 격차가 큰 수원국의 특성상 지역개발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은 지속적으로 수원국 개발 계획 중 높은 순위를 차지

\* 33개의 주(state)와 연방직할지(Union Territory)의 1인당 GDP는 약 10배 이상 차이가 존재할 정도로 지역간 불균형 발전이 극심 : Goa州 약 7,000달러 ↔ Bihar州 약 680달러

○ 지역 개발을 촉진하고자 나렌드라 모디 정부는 인도 전역에 100개의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겠다는 '100 Smart Cities Mission'을 발표('15.6월)

\* 최대 140억달러를 투자하여 100개의 신도시 건설, 500개 기존 도시의 재생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으로서, 인도 정부 발표상으로는 '21년 현재까지 66개의 스마트 시티 건설

○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각종 건설공사가 지연되면서 당초 설정된 '22년까지 동 정책을 완수하기 위한 수원국 측의 정책의지가 높아졌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은 높은 편으로 판단

② (교통) 수원국은 전세계 2위의 도로교통망과 전세계 4위의 철도교통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항공교통도 빠르게 성장 중

○ 경제발전의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로, FY21/22 예산에서도 동 부문에 2조 3천억 루피가 배정(인프라 부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신규 도로 건설 지연 등이 만성적으로 나타나면서 도로 부문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

③ (물관리/보건위생) 인도에는 전세계 인구 중 17%가 거주하지만, 전세계 담수(fresh water)의 4%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며, 보건 관련 지표도 열악

○ 1년 강수량의 약 70%를 계절성 몬순에 의지하는 인도의 특성상 갈수기(渇水期)의 물부족 사태, 몬순 이후 과잉 공급된 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문제점에 직면

\* 전체 농경지의 약 55%가 천수답인 인도 상황에서 몬순을 전후한 강수량이 농업 생산량은 물론 국가 전체 경제운용에 많은 영향을 미침

○ 대도시에서도 난개발에 따른 지하수 고갈과 오염, 하천오염과 하수 정화처리시설 부족, 불안정한 상수도 공급 등 문제가 상존하는 바, 동 분야에 대한 개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

○ 다양한 보건·영양 관련 지표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 수준으로 열악, 인도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문제 해결·영양 지표 개선을 위한 목표 제시

- 보편적 의료보장 서비스 지수(UHC Index) '17년 기준 55, 출생아 10만명 당 임산부 사망률 145명, 인구 10만명 당 결핵 발생건수 199명 등

\* 대표적 보건 지표 : 영양 부족('17년 기준 14.5%), 5세 미만 영유아 발육부진 비중('17년 기준 39.3%), 체력저하 아동 비중('17년 기준 15.7%) 등

\*\* 인도 정부는 '마을 건강 위생 및 영양의 날' 플랫폼을 강화하여 소아 포함, 전 인구 집단에 걸쳐 건강 문제 해결 목표 제시, 전체 유아 중 발육부진 상태의 비중을 25%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Strategy for India@75)

#### ④ (환경) 극심한 대기오염, 난개발에 따른 수질 및 토양오염이 심각한 수준

○ 공기오염으로 인한 수원국내 사망자가 年 170만명(총 사망자의 18%)이며, 이로 인한 경제손실도 매년 368억달러(GDP의 1.4% 수준)으로 추산

○ 인도 정부는 「Clean India」 정책을 시행해 화장실 보급, 폐기물 처리 증대, 자원 재활용 등 환경개선 프로젝트를 '25년까지 추진중인 바, 환경부문의 개발협력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

#### ⑤ (그린에너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및 급증하는 CO<sub>2</sub> 배출량 등 수원국의 현황 감안시 그린 에너지 분야 개발 수요는 높을 것으로 판단

- 인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피해(기온상승, 강수량 급감, 해안선 상승)를 가장 크게 겪는 국가중 하나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미국 등 주요 에너지 소비국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이 빠른 국가(IEA)
-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에너지 증대는 SDG의 주요 목표중 하나인 바, 이와 관련된 지원시 수원국의 정책의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

⑥ (ICT)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경쟁우위를 보유한 분야로서, 전자정부 시스템, 행정시스템 전산화, 지능형 교통망시스템 등 다양한 지원경험 보유

- 우리나라 최초의 對인도 EDCF 지원사업도 지능형 도로교통망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높은 바, 동 분야 확대 가능성도 큰 것으로 파악
- 또한, 수원국도 정보통신 및 전자산업의 발전을 위해 동 분야에 대한 원조 수원을 지속적으로 희망할 것으로 전망

**[1] 지역개발/스마트시티 분야**

## □ 지원 기본 방향

- '100 Smart Cities Mission'을 포함하여 인도 정부의 지역개발 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여 수원국내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
- 다만, 제한적인 우리나라 ODA 재원 대비 수원국의 막대한 개발 수요를 감안하여, 우수한 거버넌스를 보유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집중할 필요

## □ 분야별 목표(세부실행계획)

- (스마트시티 건설) 인도 정부의 스마트 시티 건설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인도 정부가 추진중인 도시 기반시설 현대화, 주거시설 현대화 등을 지원
  - 우리나라의 제한된 재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개발 효과성과 수원지역 거버넌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 사업을 선정

**[2] 교통 부문**

## □ 지원 기본 방향

- 인도내 철도, 도로, 항만, 공항 등 교통인프라 투자계획과 연계하여 각종 인프라 확충과 개보수를 지원
- 대규모 자본투자 및 장기간에 걸친 사업이라는 교통 인프라 사업의 특성상 필요시 다자기구와의 협업도 적극 추진

## □ 분야별 목표(세부실행계획)

- (교통 인프라 건설 지원) 철도, 도로, 항만 등 교통인프라의 건설 및 개보수 지원, 이와 연계된 각종 교통인프라 운영 및 관리(O&M) 노하우 등 전수
- (조달 재원의 다양화) 사업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의 경험 증진자금(EDPF) 또는 수출 금융 등 다양한 자원과의 협업 기회 모색
- (MDB와의 협력강화) 인프라 건설 뿐만 아니라 물류 및 교통 분야의 정책 관련 지원이 활발한 다자개발은행(MDB)과의 협업 채널을 구축·유지함으로써 다자 기구와의 협조 용자 기회를 모색

## (3) 물관리/보건위생

## □ 지원 기본 방향

- 수원국의 수자원 관리 계획 등과 연계하여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개선을 지원하여 수원국내 수자원 관리 및 하수 처리 역량 제고를 지원
- 코로나19 사태로 취약성이 드러난 인도의 보건·의료 부문의 취약성을 개선하고 감염병 등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인도 국민들의 전반적인 영양 상태 개선 지원을 위한 사업 발굴 추진

## □ 분야별 목표(세부실행계획)

- (물관리) 상·하수도 공급 확대 사업 및 수자원 관리 시스템, 하수처리 시스템, 홍수·태풍 방제 시스템의 보급 및 운영 역량 전수를 통해 수자원 관리 능력 강화를 지원
- (보건위생) 공공의료시설의 신설·기존 시설 개보수, 의료기자재 공급 및 공공·보건 위생 관련 제도·환경 개선에 기여,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 (고등 교육 등 타 분야와의 협업) 공공 의료시설 건립 이외에도 의과대학 건설 지원 등 타분야(예 : 고등교육)와의 협업 추진

#### [4] 환경

##### □ 지원 기본 방향

- 수원국의 대기, 토양, 수질 오염 등 다양한 오염원을 측정하고, 이를 저감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의 도입·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기여
- '15년 파리협약 등을 통해 구체화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동참하여 '책임있는 공여국'이라는 국제 위상 제고에 기여

##### □ 분야별 목표(세부실행계획)

- (환경 보호) 수원국의 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각종 오염 저감·처리 시설의 설립, 관련 정책 수립 등 지원
- (순환경제) 폐기물의 연·원료 전환, 재제조·재사용 등 순환경제의 기반강화를 위한 관리제도 정비 지원

#### [5] 그린 에너지

##### □ 지원 기본 방향

- 수원국의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청정 에너지를 활용한 발전 시설 등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
- 청정·녹색 에너지 기반 조성을 통해 수원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여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동참

##### □ 분야별 목표(세부실행계획)

- (기후변화 대응) 청정·녹색 에너지를 포함, 수원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mitigation) 및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대응(adaptation)과 관련된 각종 인프라 구축 및 정책 수립 등 지원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보급정책 지원

## [6] ICT 부문

### □ 지원 기본 방향

- 우리나라가 보유한 높은 수준의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노하우 및 관리·운영 경험을 수원국에 보급

### □ 분야별 목표(세부실행계획)

- 수원국의 우수한 기술인력, 타 하위중소득국 대비 다양한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수원국과의 협업 시너지 제고
- ICT 분야와 연계된 타 분야(예 : 교통 관련 ICT 시스템 등)에서의 협력 모색 등 협력 분야 다변화도 추진
- ICT를 결합한 지능형 교통망 시스템(ITS) 등 지원

## &lt; 인도 이행점검방안 &gt;

ODA 종합기본계획 전략목표 및 추진계획	중점협력 분야	분야별 목표	분야별 예상성과	예상성과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목표) 포용적 ODA</li> <li>- (추진과제) 기초 위생 인프라 구축 및 인간의 건강권 강화</li> </ul>	물관리 및 보건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하수도 인프라 및 식수 개선사업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하수도 및 수자원 관리 인프라 개선</li> <li>○ 물관리 연구체계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하수도 보급률 및 식수 위생도 증가</li> <li>○ 침수 및 홍수피해 감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위생시설 및 의료·복지 인프라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시설 건설 및 보건인력 역량 강화 통한 보건 서비스 환경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시설 구축 수 및 의료인력 증가</li> <li>○ 전염병 및 감염성 질환자수 감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목표) 상생하는 ODA</li> <li>- (추진과제) 개도국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지원</li> </ul>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도국 인프라 개발수요 증대 대응 위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간 경제 교류 확대</li> <li>○ 수출촉진 및 관광 수입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간 교통량 증가</li> <li>○ 지역간 평균 이동 시간 감소</li> <li>○ 수출금액 및 관광 수입 증가</li> </ul>
	지역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부가 인프라 및 도시화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슬럼가 재개발 통한 주거지역 생활환경 개선</li> <li>○ 법원 및 유관 업무시설 신축 통한 업무타운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 안전도 증가 및 소음 감소</li> <li>○ 업무타운 조성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목표) 상생하는 ODA</li> <li>- (추진과제) 개도국 녹색전환 및 탄소중립 지원</li> </ul>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변화 영향 대응 인프라 구축 및 정책 수립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변화 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실가스 배출 저감</li> </ul>
	그린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사회 인프라 지원시 친환경 사업요소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재생 에너지 발전 용량 비중</li> <li>○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으로 연간 감소된 온실가스 배출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목표) 혁신적 ODA</li> <li>- (추진과제) 개도국 디지털화·스마트화 추진 지원</li> </ul>	I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CT를 결합한 교통 시스템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시간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공공행정 분야 협력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공공행정 시스템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공공행정 시스템 접근 비중 증가</li> </ul>



### III. 이행전략

#### □ 수원국 개발 수요 규모와 조화되는 공여액의 점진적 확대

- (배경) 수원국은 연간 공여액 및 사업별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공여국과의 협력 희망하고 있으며, 다수의 공여국이 수원국 진출을 추진 중인 바 사업 주도권이 비교적 수원국 정부로 치중
- (대응방안) 후보사업 발굴·협의를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수원국 우선순위에 있는 대형사업을 확보하는 한편 EDCF 기본약정(F/A) 체결을 통해 대규모 공여액을 제시

#### □ 수원국 경제 발전과 공여국의 경제적 이익의 균형

- (배경) 수원국은 자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목표로 'Make in India'에 이어 'Self-Reliant India' 정책을 추진 중
- 이로 인해, 양자원조에서도 자국산 부품 비율 최대화, 구속성 지원 규모에 상응하는 비구속성 원조 제공을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수원 조건을 제시
- (대응방안) 수원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한다는 원조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수원국의 의견을 수용하는 개방적 태도는 견지하되,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과의 균형을 이루도록 원조 정책을 유지

## □ 수원국과의 긴밀한 소통

- (배경) 원조 수원 정책 및 실무에 있어서 **재무부의 의사결정 권한이 강한 편**이며, 양자원조는 물론 다자원조에서도 각급 지방정부, 사업 수행기관 및 원조 공여기관에게도 강한 영향력을 발휘
- (대응방안) 양 정부간 정기적 정책협의 통한 수원국과의 협의채널을 유지하고, 실무협의를 실시하여 수원국의 경제개발 전략 및 개발 수요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체계 활성화

## □ SDGs 기여

- (배경) 인도 「Strategy for New India @ 75」을 통해 SDGs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적 개선을 추진 중이며, 인도 정부는 SDGs 이행을 위한 **물관리·보건위생** 분야에서의 수원 희망하는 바, 향후 협력 가능성 증대
- 기후/환경 오염과 함께, 성평등(gender equality), 포용적 사회 건설(social inclusion) 등 SDGs 관련 이슈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수원국의 복합적인 빈곤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
- (대응방안) SDGs 목표를 기존의 원조 분야에 주류화(mainstream)하는 원조뿐만 아니라, SDGs 자체를 1차 목표로 하여 적극 지원할 필요
  - ※ 예 : 기후변화를 2차적 목표(significant objective)로 하는 프로젝트(예 : 철도 건설 등)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방지와 적응을 1차 목표(principal objective)로 하는 삼림녹화(저감), 탄소포집저장(저감), 홍수피해 방지(적응), 수자원관리(적응) 등을 추진할 필요
-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추진중인 **디지털·그린 뉴딜**과의 정합성 제고 및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원조 위상 제고를 동시에 달성

## IV. 모니터링 및 평가

### 1 모니터링 방안

- (통합모니터링) 우리나라 ODA사업 전반의 정보 공유 및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종합 평가를 위해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활용**
  - 사업개시 2년 전부터 기관별 예비사업을 공유하여 ODA 사업 발굴단계 부터 사업간 연계방안을 협의하여 지속적인 관리 진행
  - 수원국 ODA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이 회의를 통해 ODA 사업 모니터링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 등을 논의
- (리스크 매트릭스)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은 국가별 중점협력분야에 대한 리스크 매트릭스를 작성하여 모니터링 시 이를 적극 활용
  - 리스크 매트릭스는 위험요인과 대응 방안을 명시하여 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작성
  - 시행기관은 명시된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정기적으로 주관 기관에 보고하고 필요시 합동대응

#### <리스크 매트릭스>

위험 요인	대응 방안	모니터링 시기
1. 정치적 불안 상황 발생 (정치적 혼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수행 시 정책지속성과 정치변화요인 분석</li> <li>○ 사업과 연계된 정책의 지속성 여부 모니터링</li> </ul>	상황 발생 시
2. 테러로 인한 자산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 규모 및 안전상황 점검</li> <li>○ 사업진행 상황 집중 모니터링</li> <li>○ 필요 시 개별사업 일정조정을 통한 효과적 사업관리</li> </ul>	상황 발생 시
3. 거시경제적 불안상황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환경변화를 실시간 반영한 원조예산 조정 및 적시 투입</li> <li>○ 필요 시 개별사업 일정조정을 통한 효과적 사업관리</li> <li>○ 사업진행 상황 집중 모니터링</li> </ul>	상황 발생 시
4. 자연재해 및 전염병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재해 발생 시 긴급구호 지원 검토</li> <li>○ 전염병 발생 시 사업 일정 및 환경 점검</li> <li>○ 필요 시 개별사업 일정조정을 통한 효과적 사업관리</li> </ul>	상황 발생 시

5. 법적·제도적 장애물 또는 변경사항 발생	○ 법적·제도적 장애요인·변경사항 및 사업과의 연계성 분석 ○ 사업진행 계획 변경 필요 검토	상황 발생 시
6. 수원국 담당 부서 또는 담당자 변경	○ 수원국과의 대화채널 점검 및 재설정 ○ 변경된 담당 부서 또는 담당자에게 브리핑 조속히 실시	상황 발생 시
7. 공여국간 협력 악화	○ 공여국 대화채널 확대 모색	분기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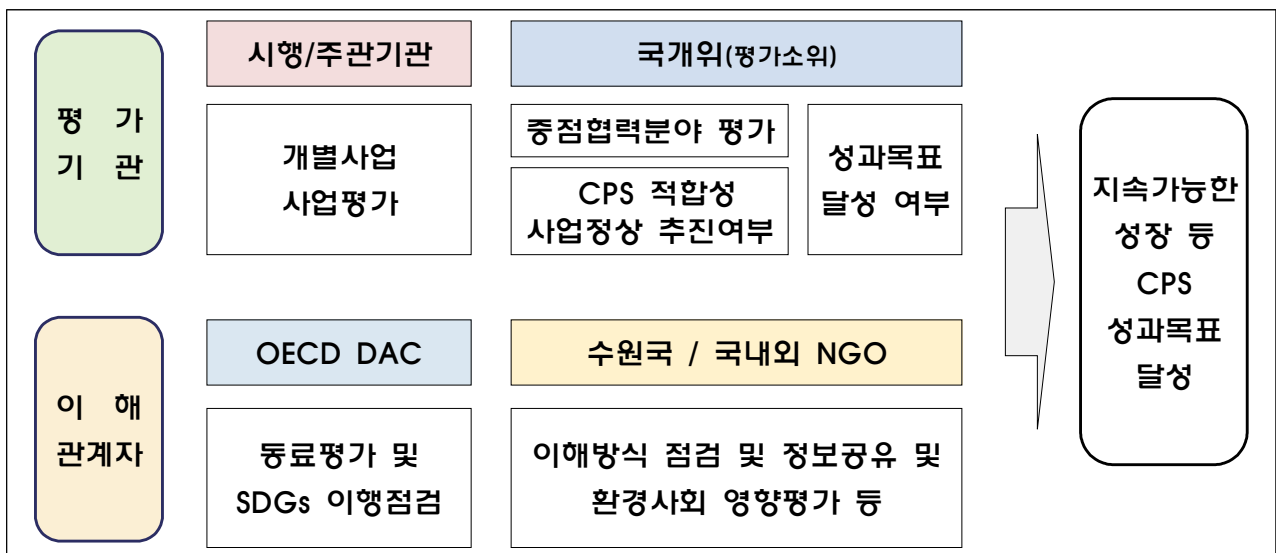
## 2 평가 계획

- (평가목적) 국가협력전략의 중점협력분야별 목표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차기 전략 수립 시 반영
- (평가시기) 중간점검은 CPS 수립시점으로부터 2~3년 경과 후 필요시 진행하며, 종료평가는 CPS 종료시점으로부터 1년 전에 실시
- (평가유형) 각각의 평가는 중점협력분야별로 목표, 제약요인, 성과, 평가 지표 등을 고려하여 실시
  - (중간점검) 수원국 국가개발전략 변경, CPS 수정 필요사항 발생 등 필요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
  - (종료평가) 국가별로 평가의 중요성 및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소위원회 주관으로 평가 실시

	평가시기	평가주체	비 고
중간점검	CPS 적용 2-3년 후	평가소위 (주관기관, 시행기관 참여)	중간점검 이후 결과에 따라 필요시 CPS 수정
종료평가	CPS 종료 1년 전	평가소위 (주관기관, 시행기관 참여)	종료평가 결과에 따라 CPS 수정 및 재수립

- (평가내용) ODA 시행사업, 중점협력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OECD DAC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시행
  - (시행사업) 사업별 평가는 사업 시행기관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진행하되, 가능한 범주 내에서 성과점검방안 가이드라인의 정량적인 평가지표를 포함
  - (평가기준) OECD DAC 5대 평가원칙(공정성, 독립성, 신뢰성, 유용성, 파트너십) 및 6대 평가기준(적절성, 일관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에 기반하되 필요시 기준을 일부 수정하여 평가
  - (중점협력분야) 이행점검상 성과지표를 활용한 시행기관의 사업별 평가결과를 포함, CPS에 따른 사업발굴 및 이행결과를 점검

<평가 절차 도식도>



- (평가환류) 개별사업 및 현행 CPS에 대한 중간점검, 종료평가 시 발견된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차기 CPS에 반영

## 참고

## 인도 개황

### 1 국가 개황

국명	인도(The Republic of India)
면적	3,287,263 km <sup>2</sup> (남북길이 약 3,200km, 동서길이 약 2,900km)
수도	뉴 델리(New Delhi)
인구	1,391,197,718 명(세계 2위) (출처 : UN 2021.04.기준)
민족(인종)	인도-아리안(72%), 드라비다(25%), 몽골계 및 기타(3%)
언어	힌두어, 영어 외 21개
종교	힌두(80%), 이슬람(13%), 기독교(2.3%), 시크교(1.9%), 기타(2.8%)
기후	열대 몬순, 온대 기후, 고산 기후 등 다양
국가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원수(대통령): 람 나트 코빈드 (Ram Nath Kovind)</li> <li>- 취임일: '17. 7. 25. (5년 임기)</li> <li>○ 총 리: 나렌드라 모디 (Narendra Modi)</li> <li>- 취임일: '14. 5. 26 ('19. 5. 19. 연임)</li> <li>- 소속 정당: 인도인민당 (Bharatiya Janata Party)</li> </ul>

자료 : 주인도 한국대사관 및 KOTRA 국가지역정보 등

### 2 주요 경제 지표

경제지표	2016	2017	2018	2019	2020
경제성장률 (%)	8.3	6.8	6.5	4.0	-8.0
명목GDP (십억달러)	2,294.12	2,651.47	2,701.11	2,870.5	2,708.77
1인당 GDP (PPP, 달러)	5,839.9	6,185.99	6,655.07	6,996.56	6,610
1인당 명목 GDP 달러)	1,732.05	1,980.69	1,996.95	2,098.93	1,964.88
정부부채 (% of GDP)	68.7	69.5	70.2	73.9	89.6
물가상승률 (%)	4.5	3.6	3.4	4.8	6.2
실업률 (%)	6.29	4.68	6.97	7.58	9.27
수출액 (십억달러)	275.9	303.5	330.1	324.3	276.3
수입액 (십억달러)	384.4	465.6	514.1	486.1	372.8
무역수지 (십억달러)	-108.5	-162.1	-184.0	-161.7	-96.5
외환보유고 (십억달러)	341.9	390.2	375.4	457.5	584.1
대미달러환율	67.2	65.12	68.39	74.94	74.13

자료 : KOTRA 국가지역정보 및 한국수출입은행 국가편람 등

## 2

## 양국간 무역 및 투자 현황

- (양국간 교역규모) 최근 양국간 교역규모는 연평균 200억달러 규모 수준,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 매년 70억~90억달러 규모를 유지

< 한-인도 교역 동향(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출액	11,596	15,056	15,606	15,096	11,956
수입액	4,189	4,948	5,885	5,565	4,899
교역액	15,785	20,004	21,491	20,661	16,855
무역수지	7,407	10,108	9,721	9,531	7,057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투자현황) 인도 총 직접투자액(FDI) 유치액 중 약 1% 수준

< '00. 4월 ~'21. 3월 對 인도 FDI 현황 (단위 : 백만달러) >

투자국	모리셔스	싱가포르	미국	네덜란드	일본	한국	계
투자액	1,483.5	1,150.9	436.0	366.4	354.5	48.8	5,297.0
비중(%)	28.0	21.7	8.2	6.9	6.7	0.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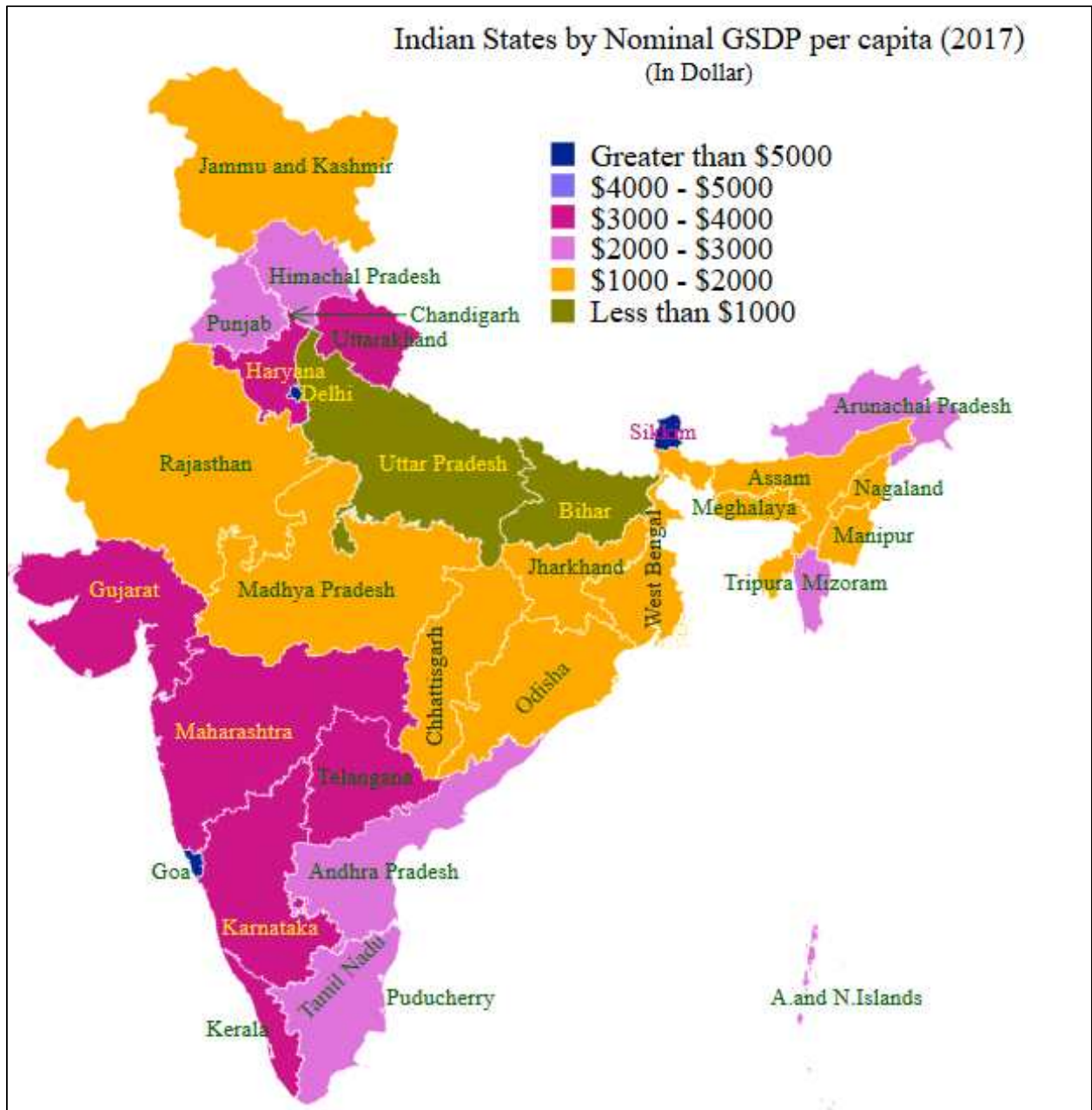
자료 : 인도투자진흥청(DPIIT)

< 한-인도 상위 10개 수출입 품목(2020년 기준, 백만달러) >

순위	수출품목(한국→인도)			순위	수입품목(인도→한국)		
	품목명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품목명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1	합성수지	995	-18.9	1	나프타	1,044	-13.5
2	집적회로반도체	1,048	-26.9	2	알루미늄괴및스크랩	740	-8.4
3	자동차부품	1,013	-11.9	3	기타정밀화학원료	258	-5.2
4	윤활유	479	-22.8	4	합금철	154	-35.6
5	열연강판	417	-50.7	5	철광	59	-55.9
6	기타석유화학제품	322	-10.5	6	농약	113	3.6
7	냉연강판	262	-36.6	7	박류	154	-5.0
8	기타정밀화학원료	232	-19.9	8	자동차부품	130	3.9
9	아연도강판	269	-27.9	9	의약품	135	-2.0
10	기초유분	173	35.3	10	연괴및스크랩	101	-19.5

출처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지역 개황) 지역별 소득수준 및 수원태도가 상이한 편




※ 소득수준이 높은 서부 및 남부 지역의 경우 州정부의 수원 태도 및 거버넌스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출처 : 인도 통계청(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 인도 국별 CPS 이행계획 >

중점 협력 분야	분야별 목표	사업명	추진일정						성과지표 (목표)
			'21	'22	'23	'24	'25	'26	
지역 개발	○ 고부가 인프라 및 도시화 지원	मुंबई बंदरा 공 공지구 재개발 사업 (검토중)							○ 주택 안전도 증가 및 소 음 감소 ○ 업무타운 조성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교통	○ 개발수요 증대 대 응 위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 지원	인도 물류분야 개 선 프로그램차관							○ 차관 지원으로 구축된 물류 스마트 시스템 시행 ○ 연안운송 통한 화물이 동 증가
ICT	○ ICT 결합 교통시 스템 지원	नागपूर-मुंबई 고 속도로 ITS 구축사 업(22-27, 기재부, 192,107 백만원)							○ 나그푸르-मुंबई 고속 도로상 교통사고 발생 건수 감소 ○ 고속도로 이용자를 위 한 실시간교통정보 제공
물관 리 및 보건 위생	○ 상하수도 인프라 및 식수 개선사업 실시 ○ 공공위생시설 및 의 료복지 인프라 구축	후보사업 발굴예정							
환경	○ 기후변화 영향 대응 인프라 구축 및 정 책수립 지원								
그린 에너 지	○ 경제사회 인프라 지 원시 친환경 사업요 소 적용								

\*  : 사업준비(심사·차관계약 체결(정책과제 이행점검) 혹은 협의의사록(약정)체결)

 : 사업시행(사업자 선정 및 시공, 집행 및 성과평가)

\*\* 승인예정 혹은 후보사업일 경우 "사업명(검토중)" 으로 표기